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맞짱

아기자기 한국영화

올 여름은 할리우드 영화 천국이었다. '스파이더맨' '캐리비언의 해적' '트랜스포머'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등의 기세에 눌려 한국 영화는 기를 펴지 못했다. '화려한 휴가' '디워' 이외에는 올해 이렇다할 흥행작을 내놓지 못하며 침체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겨울방학을 앞둔 12월, 할리우드 대작들의 습격이 시작됐다.

할리우드 대작 습격 시작 … 한국영화 맬로·로맨틱 코미디로 대적

▲대형작품으로 승부하는 할리우드

'반지의 제왕' '나니아 연대기' 등 겨울 극장가를 휩쓸었던 판타지 영화의 신화를 재현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영화는 '황금 나침반'이다.

전 세계적으로 1천 400만부가 팔린 필립 풀먼의 베스트셀러를 영화로 만든 '황금 나침반'은 진실만을 알려주는 황금 나침반을 갖게 된 열두살 소녀 리라의 모험을 그린 작품. 막대한 제작비를 쏟아부은 화려한 볼거리와 함께 니콜 키드만, 에바 그린, 다니엘 크레이그 등 연기자들의 면면도 기대를 갖게하는 대목이다.

13일 개봉하는 윌 스미스의 '나는 전설이다'는 전 인류가 멸명한 미래에 홀로 살아남은 과학자, 자신의 피를 노리는 또 다른생명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벌이는 사투를 그린 작품으로 흥행 보증수표 윌 스미스가 주연을 맡았다.

'미저리' '캐리' 등을 쓴 스티븐 킹이 "내가 소설을 쓰게 된 것은 '나는 전설이다' 를 읽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명성을 얻고 있는 리처드 매드슨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장난감 가게를 배경으로 한 신나는 가족 영화도 대기중이다. '마고리엄의 장난감 백화점'은 장난감이 살아 움직이며 친구가 돼주는 유쾌한 상상을 스크린에 펼쳐보이는 작품. 마법의 힘을 통해 55세부터 늙지 않고 114년간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미스터 마고리엄이 백화점을 상냥한 매니저 몰리에게 맡기면서 전개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주연은 더스틴 호프만과 나탈리 포트만.

그밖에 흥행 감독 리들리 스콧이 메가폰을 잡고 덴젤 워싱턴, 러셀 클로가 주연을 맡은 '아메리칸 갱스터'도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아기자기한 한국영화

한국 영화의 경우 대작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 대부분이 규모가 작은 작품들로 설경구 등을 제외하고는 티켓 파워를 갖고 있는 톱스타들도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최근 '식객'의 선전에서 보듯, 톱스타가 출연하지 않아도 흥행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장 눈길을 모으고 있는 작품은 설경구와 김태희가 호흡을 맞춘 '싸움'. 다소 어울리지 않는 조합으로 보이는 두 사람은 '죽기 살기로' 싸우는 부부 역을 맡았다.

옴니버스 영화 '내 사랑'은 2005년 크리스마스 즈음에 개봉해 흥행 몰이에 성공했던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을 연상케 하는 작품. 감우성·최강희·정일우·엄태웅 등이 출연하는 '내 사랑'에서는 4쌍의 커플이 전하는 각각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진다.

한예슬의 스크린 데뷔작으로 화제를 모은 '용의주도 미스신'은 '쇼핑 하듯' 남자를 만나는 여자의 이야기를 다룬 로맨틱 코미디. 한예슬의 남자로 권오중·김인권·손호영 등이 출연한다.

19세 관람가를 받은 섹스 코미디 '색즉시공2'는 전작에 이어 연타석 홈런을 칠 지 관심이 가는 작품. 400만명을 동원하는 데 일등공신이었던 임창정·최성국·신이 등이 그대로 출연하며 하지원이 열연했던 여주인공 역은 송지효가 맡았다.

그밖에 '식객'의 김강우와 김민선이 주연을 맡은 스릴러물 '가면'과 '남극일기'의 임필성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천정명 주연의 '헨젤과 그레텔'도 눈길을 모은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목! 이 영화

'열한번째 엄마'

배우 김혜수의 변신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품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아빠가 데려온 한 여자에게서 엄마의 사랑을 느끼는 열한살 소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파격적인 숏컷트 머리…김혜수의 변신

재수는 브로커 아버지가 데리고 온 '열 한번째 엄마'가 싫다.

남들은 예쁘다고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잔소리를 늘어놓는 그녀가 지겨울 뿐이고 먹을 것만 보면 참지 못하는 그녀에게도 질린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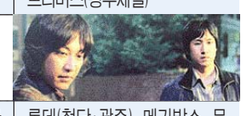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에서는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서로를 조금씩 의지하며 마음을 열어간다. 그러던 어느날 시름시름 앓던 그녀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재수는 또 다른 상실감에 빠진다.

아역 배우 김영찬이 주인공 재수 역을 맡아 김혜수와 앙상블을 보여주며 최근 충무로가 주목한 배우 중 한명인 류승룡이 재수의 아버지 역으로 출연한다. 연기파 배우 황정민은 김혜수에게 치근덕거리는 백중

으로 우정출연한다. 〈12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말 극장가

영 화	상영극장
마이클 클레이튼	
조지 클루니가 주연을 맡은 영화로 법률 회사와 거대 기업에 맞서는 한 남자의 이야기. 15세 이상 관람가.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하미, 프리머스(광주제일)
어거스트 러쉬	
11살 소년의 음악을 통한 부모 찾기 여정. 전체 관람가.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하미, 프리머스(광주제일)
열한번째 엄마	
12살 소년 재수와 창녀 출신 여자가 그리는 애틋한 이야기. 12세 이상 관람가.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하미, 프리머스(광주제일)
우리 동네	
모방살인을 소재로 한 스릴러물로 오만석·류덕환이 주연을 맡았다. 18세 이상 관람가.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하미, 프리머스(광주제일)
히트맨	
동명의 인기 비디오 게임을 영화로 옮긴 작품. 18세 이상 관람가.	롯데(첨단),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첨단), 하미
골든 에이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시대물. 12세 이상 입장가.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첨단), 씨너스 전대, 하미, 엔터
라비앙 로즈	
상송 가수 에디트 삐아프의 인생을 그린 영화. 12세 이상 관람가.	메가박스,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첨단)
쏘우 4	
시리즈물로 만들어 져 인기를 모으고 있는 직소퍼즐을 소재로 한 공포영화. 18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하미, 프리머스(광주제일)
베오울프	
많은 팬을 갖고 있는 판타지 소설을 영화로 옮긴 작품으로 안젤리나 졸리가 주연을 맡았다. 12세 이상 관람가.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하미, 엔터
세븐 데이즈	
7일간 한 범인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변호사의 사투를 그린 스릴러물. 18세 이상 관람가.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하미, 프리머스(광주제일)
색, 계	
리안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애정물로 양조위가 주연을 맡았다. 18세 이상 관람가.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제일)